



# 이집트 수에즈운하 폭과 길이 확장하는 방안 추진

## 오는 2010년까지 10억달러 투입 초대형선 이용토록

파나마가 지난 10월 운하 확장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이집트도 오는 2010년까지 10억 달러를 투입, 수에즈 운하를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에즈운하 관리청은 운하를 10피트(3미터) 정도 깊게 하고, 폭도 지금보다 17% 가량 넓혀 흘수 72 피트(21.6미터) 길이 365미터의 선박이 통항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파나마 운하 당국은 10월22일 국민투표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52억5,000만 달러를 들여 1만2,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확장공사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1986년에 개통된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대표적인 선박 통행로로 2005년에 모두 1만 7,000척이 넘는 선박이 이용했으며, 운하 통행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33억 달러(2005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선박을 유치해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에즈 운하는 현재 흘수가 53피트(16미터)로 제한돼 있어 최대 16만톤(DWT)급 이하 선박만이 운항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집트는 운하를 통행하지 못하는 수에즈 막스 유조선 가운데 260척 정도를 운하 확장사업을 통해 유치할 계획이다.

로이즈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484척의 대형유조선(VLCC)이 중동에서 유럽 및 북미로 운항했는데, 이 가운데 254척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 항해하였으며, 220척만이 원유를 일부 적재한 후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다.

수에즈 운하 이용으로 특히 정유회사들이 유조선 선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중동산 원유를 유럽 또는 미국으로 수송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미국항 수송기간이 40일에서 35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초대형 유조선(VLCC)이 중동지역에서 원유를 적재한 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수에즈 만의 애인 수크나(Ain Sukhna) 터미널에서 일부 원유를 양하한 뒤 수메드(Sumed) 송유관을 통해 지중해 연안의 시디 케릴(Sidi Kerir)까지 운송한 후 다시 선박에 적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운하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원유를 적재한 많은 대형유조선들이 수에즈 운하를 쉽게 이용하여 지중해와 홍해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유사 입장에서는 선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늘어나게 되나.

수에즈 운하 확장으로 VLCC 선박이 자유로이 운하를 통과할 수 있게 될 경우 유럽산 원유를 아시아로 수송하기 위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유럽, 발틱 해 및 북아프리카 산 원유를 아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루트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즈는 연간 50척의 VLCC 선박이 북유럽, 발틱 해 및 북 아프리카 산 원유를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여 아시아로 수송하고 있는데 55일이나 소요된다고 밝히고,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경우 10~15일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조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